

교우관계와 교사관계가 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의 적용

이택호 이석영 한윤선[†]

성균관대학교 아동·청소년학과

본 연구는 교우관계와 다문화수용성, 그리고 교사관계와 다문화수용성의 종단적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 자료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NYPI)의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KCYPs) 데이터 중 2011~2013년에 조사한 중1패널 2차년도 데이터(중학교 2학년), 중1패널 3차년도 데이터(중학교 3학년), 중1패널 4차년도 데이터(고등학교 1학년)를 사용하였다($N=2,178$). 종속 변수를 다문화수용성으로 설정하고, 독립변수를 교우관계와 교사관계로 설정한 뒤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교우관계, 교사관계, 다문화수용성의 수준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종단적 관계에서 교우관계는 다문화수용성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나타냈다. 즉 친구와의 관계가 원활할수록 다문화수용성의 수준도 높아졌다. 셋째, 종단적 관계에서 교사관계는 다문화수용성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나타냈다. 즉 교사와의 관계가 좋아질수록 다문화수용성의 수준도 높아졌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횡단적 분석이 주를 이뤘던 이전 연구들과의 차별성을 두었고, 다문화수용성의 함양을 위한 교육적 시사점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주요어 : 교우관계, 교사관계, 다문화수용성, 잠재성장모형

[†] 교신저자 : 한윤선, 성균관대학교 아동·청소년학과, (110-745) 서울시 종로구 성균관로 25-2

E-mail : yoonsunhan@skku.edu

증가하는 다문화 가족

최근 국제결혼의 증가로 인하여 다문화 가족은 한국 사회에서 가족의 한 형태로 자리 잡았으며 정책적으로도 중요한 대상이 되고 있다. 여성가족부(2013)에 의하면 2011년도 국제결혼이 전체 결혼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9.0%로 2000년 3.5%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하였다. 다문화 가족의 증가와 더불어 다문화 청소년 역시 전체 학생수의 1%를 차지하며 그 비중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통계청, 여성가족부, 2014). 하지만 다문화 가족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문화 가족에 대한 인식은 아직까지 뒤쳐지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사회는 출신국가의 경제발전수준에 따라 사회적 편견이 심각한 수준이며 다문화 가족을 우리나라의 한 국민으로 받아들이는데 소극적인 자세를 지니고 있다(김이선, 황정미, 이진영, 2007). 특히 결혼이민자와 귀화자의 41.3%가 사회적 차별경험을 경험하고 있다는 점에서(여성가족부, 2013) 편견과 인식의 변화는 필수적이다. 따라서 편견과 인식을 변화시키며 다민족·다문화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공존하는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타문화와 자문화를 동등하게 보는 다문화수용성(민무숙, 안상수, 김이선, 김금미, 류정아, 조영기, 2010)의 함양이 중요하다.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성

다문화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하여 다민족·다문화 사회 구성원들의 통합과 공존이 주요 사회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갖기 위해 다문화 수용성에 대한 연구와 관심은 증

가하고 있지만 그 정의는 합의되지 않은 채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김미진과 정옥분(2010)은 아동의 다문화 수용성을 다문화 관계 형성능력, 다문화 인식, 다문화 개방성, 다문화 공감 4가지 요인으로 규명하였다. 다문화 관계형성능력은 다문화가정 아동과의 관계에서 적절하고 적극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며, 다문화 인식은 문화와 외모의 차이를 인식하고 존중하는 태도이다. 다문화 개방성은 편견이나 고정관념 없이 다문화 아동을 열린 태도로 받아들이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다문화 공감은 다문화 가정 아동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공감적인 태도를 나타낸다. 그 외에 김경근과 황여정(2012)은 다른 나라 사람과 친구를 맺을 수 있는가에 대한 정도를 다문화 수용성으로 정의하였으며, 황정미(2010)는 다문화 가정을 사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지, 공동체에 초래하는 부정적인 변화를 어떻게 인지하는지에 대한 두 가지 차원으로 다문화수용성을 정의하였다. 따라서 앞선 선행 연구들의 정의를 보았을 때, 다문화수용성은 자신의 인종과 문화가 다른 집단을 편견 없이 동등하게 사회의 구성원으로 수용하는 태도로 볼 수 있다(윤인진, 송영호, 2009).

이러한 다문화 수용성은 청소년기에 특히나 중요하다. 점차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는 한국 사회에서 청소년들의 다문화 집단에 대한 편견과 부정적 태도는 미래의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데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청소년기는 가치관을 확립하는 시기이며 편견이나 고정관념에 쉽게 영향을 받는 시기이다. 이처럼 청소년기의 다문화수용성 확립은 중요한 쟁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된다(김준홍, 2012). 김준홍(2012)은

2009년 국제시민교육조사(International Civic and Citizenship Education Study) 자료를 이용하여 38개국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적 태도를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 청소년은 38개국 중 21위로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종남(2010)의 연구에선 중등학교 학생들의 다문화가정에 대한 인식은 대체적으로 호의적이거나 중립적이었지만 다문화 수용도는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특히나 청소년들은 동남아 및 새터민에게 사회적 거리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홍봉선, 아영아, 2011). 따라서 미래 사회 통합을 위해 국가별 차이 없이 동등하게 받아들이는 다문화 수용성 함양은 한국 청소년들에게 필수적이다.

위와 같이 현재 한국사회의 청소년들은 다문화 수용성에 있어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지만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성인(김현아, 2013; 남희은, 이미란, 배은석, 김선희, 백정원, 2014; 박혜숙, 2013)과 아동(김현정, 이태상, 2015; 이자형, 김경근, 2014)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었고 청소년과 관련된 정밀한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인성교육 프로그램 참여가 거론되는데(진의남, 2012), 이러한 프로그램의 경험적 근거를 위한 기초 연구 자료가 부족하다. 따라서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성을 향상시키는 요인에 대한 논의가 요구된다.

청소년의 교우·교사관계

한국의 청소년들은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보다 학교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청소년기의 학교는 중요한 생태학적 영역으로 부각된다(Crosnoe & Johnson, 2011). 따라서 하

루의 대부분을 마주하고 상호작용하는 또래와 교사는 청소년들의 사회성발달이나 대인관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먼저, 교우관계의 경우 개인의 인지적인 측면이 아닌 사회적 관계를 나타내기 때문에 학자들마다 다양하게 정의된다. Sharabany, Gershoni와 Hofman(1981)은 친밀한 교우관계는 또래들과 친교를 서로 맺는 것이라 정의하였으며 그 관계는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 진실되고 자발적이며 개방적이라고 하였다. 또한 청소년들은 친밀한 교우관계 속에서 소속감을 느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집단이 독립적이길 원하며 물질적이고 감정적인 지지를 주고받음으로써 서로를 돕고자 한다고 보고하였다. Hartup(1983)은 친구 간에 서로 애정과 관심을 갖고 흥미와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지속적인 상호관계를 유지하는 양방향적인 애착관계를 교우관계로 정의하였다. 앞선 선행연구들이 교우관계를 신뢰와 애정, 상호관계를 강조하였다는 점에서 교우관계를 다시 한 번 정의한다면, 또래간의 신뢰와 애정을 가지고 친밀한 상호관계를 맺으며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사회적 관계로 볼 수 있다(정홍란, 2012).

청소년시기의 교우관계는 청소년들의 사회·인지발달뿐만 아니라 성인기의 행동에도 큰 영향을 준다(Hartup, 1993). 특히 청소년시기의 친밀한 친구관계는 친사회적 행동, 친밀감 등의 사회성 발달에도 영향을 준다(Berndt, 2002). 또한 청소년들은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를 이해하게 되며, 이는 자기이해로까지 확대되어 자신을 새롭게 인지하게 된다(Youniss, 1982). 하지만 또래관계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은 자기가치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며 외로움을 느끼게 된다(Hymel, Rubin, Rowden, & LeMare, 1990). 이

러한 청소년들은 대인관계에 있어 어려움을 겪게 되며 학교부적응, 비행문제, 정서문제 등을 겪기도 한다(박영신, 김의철, 김영희, 2007). 그러나 친밀한 교우관계를 맺고 있을 경우, 외로움을 덜 느끼며 내적부적응 문제가 줄어들기도 한다(Fordham & Stevenson-Hinde, 1999; Parker & Asher, 1993). 이처럼 교우관계는 청소년의 적응과 사회·정서발달에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있으며, 이후 성인기의 행동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요소로 생각해볼 수 있다.

교사관계의 경우 본 연구에서는 학생이 지각한 교사-학생관계를 나타내는 의미로 사용하였으며, 교우관계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정의를 내릴 수 있다. 교사관계는 교사가 학생에게 제공하는 심리공간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심리공간을 학생과 같이 공유함으로써 자신들의 행동이나 생각을 지지 받을 수 있는 영역이다(김종백, 김준엽, 2014). 또한 교사관계는 학교라는 공간에서 이뤄지는 일시적이고 인위적인 관계이지만 신뢰와 사랑으로 맺어진 중요한 관계라고 볼 수도 있다(최옥순, 2015). 교사관계는 이론적 틀에 의해 설명될 수도 있는데, Davis(2003)는 동기적 관점, 사회문화적 관점, 애착이론적 관점 이렇게 세 가지 틀에 의해 개념화하였다. 동기적 관점에서 교사관계는 학생에게 학습활동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았고, 사회문화적 관점에서는 서로 함께 이해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학습과정(scaffolding)을 중요시한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애착이론적 관점에서는 교사관계를 부모-자녀관계의 확장으로 보며, 교사 혹은 학생의 정서 발달적 관점을 함께 고려한다.

한편 교사관계의 대한 다양한 정의와 마찬가지로

교사관계를 구성하는 요인들 역시 친밀감, 의존성, 애착정도, 유능감 등 다양한 변인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학자마다 견해가 다른 실정이다(윤준기, 2010). Birch와 Ladd(1997)의 연구에서는 Pianta와 Steinberg(1992)가 개발한 척도를 반영하여 교사관계의 하위 구성요소로써 친밀감(Closeness), 의존성(Dependency), 갈등(Conflict)을 제시하였다. 지은립, 백순근, 채선희와 설현수(2003)는 교사-학생관계를 이해공감, 친밀감, 신뢰감, 존중감, 유능감 이렇게 다섯 가지 하위요소로 구성하였다. 또한 김종백과 김남희(2009)의 연구에서는 교사관계를 설명함에 있어 민감성, 수용성, 신뢰성, 접근가능성의 네 가지 하위요인을 기반으로 하였다.

다문화 수용성과 교우·교사관계 요인

청소년 시기의 친밀한 교우관계는 서로간의 활발한 상호작용을 가능하게하며 타인의 문제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갖게 한다(오미섭, 2013). 즉, 자신의 고민이나 생각 등을 함께 공유할 친구가 있다는 점은 자신 외의 타자를 수용할 여유를 갖게 해준다. 또한 또래관계에 있어 긍정적 지지를 받는 청소년들은 자존감 및 정서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며 타인에 대한 배려와 도덕성도 함께 발달하게 된다. 이처럼 청소년기의 친밀한 교우관계는 타인에 대한 이해를 도와주며 공동체의식 함양에 영향을 준다(오미섭, 2013). 그리고 공동체 의식이 다문화 유무를 떠나서 지역사회 내 모든 사람들이 함께 존중하고 배려하는 보편적인 가치와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를 다문화수용성과도 연관 지어 생각해볼 수 있다(김문수, 2014). 즉, 앞선 선행연구들을 고려하였

을 때 친밀한 교우관계는 다문화수용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최지영, 김재철, 2015). 김경근과 황여정(2012)은 서울 교육중단연구를 이용하여 중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요인에 대해 서열회귀분석을 통해 알아본 결과, 친구관계가 다문화수용성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하였다. 김문수(2014)는 공동체 의식이 낮아도 또래애착이 매개역할을 하여 다문화수용성을 높여줄 수 있다고 보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교우관계가 다문화수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뒷받침해준다.

아동과 교사와의 관계는 기존의 부모에게서 형성되었던 아동의 행동, 신념, 정서에 영향을 미친다(Erickson & Pianta, 1989). 아동이 교사에게 친밀감을 느끼고 언제든 자신의 얘기를 할 수 있는 대상으로 인식하는 것은 아동의 적응과정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주소영, 이양희, 2012). 특히 교사가 아동에게 친절한 태도와 관심을 보이고 아동과 상호작용할 경우, 아동은 교사의 타인에 대한 자세나 태도를 모방하게 되며 이는 사회문화적으로 다른 타인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다문화 수용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최지영, 김재철, 2015). 이자형과 김경근(2013)의 연구에서는 한국 아동·청소년패널조사 1, 2차년도 데이터를 이용하여 중학생의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요인들을 위계적 선형모형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교사와 친밀할수록 다문화 수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부모관계는 다문화 수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가족보다는 교사나 친구관계가 청소년의 가치관과 태도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이진남, 김영은과 이기용(2013)의 연구에서

도 교우관계, 교사관계, 이웃관계 등 타인과의 긍정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준다고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들은 교우관계와 마찬가지로 교사관계가 다문화수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처럼 청소년시기의 교우·교사관계는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끼치지만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횡단적 분석을 사용하였으며 그 발달체적을 면밀하게 본 연구는 아직 부족하다(이자형, 김경근, 2013; 이진남 외, 2013). 먼저 교우관계와 교사관계를 종단적으로 살펴본 연구를 보면, 학년의 증가에 따라 교우관계와 교사관계는 긍정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김경식, 이현철, 2010; 박정주, 2011). 김민성, 신택수와 허유성(2012)의 연구에 따르면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의 교우관계와 교사관계의 변화는 긍정적으로 증가했다. 그리고 중학교 2학년부턴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또래관계와 교사관계의 변화를 살펴본 연구에서는 또래관계, 교사관계 모두 5년 동안 꾸준히 증가한다고 보고했다(이재경, 2012). 이처럼 교우관계와 교사관계가 증가하게 되는 점은 사회적 조망수용능력의 발달에 따른 친사회성의 증가로 설명되기도 한다(Fabes, Carlo, Kupanoff, Laible, 1999; Gurucharri & Selman, 1982). 즉,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타인에 대한 이해심이 높아지며 이로 인해 타인과 긍정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이 발달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긍정적인 관계는 청소년들의 친사회적 행동에 대한 동기를 높여줌으로써 긍정적인 대인관계가 지속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되는 것이다(Wentzel, 1998; 진은설, 임영식, 2008; 문찬수, 박정하, 이해나, 2012).

한편, 다문화수용성과 관련된 연구들을 살

펴보면, 아동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자신 외의 타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며 사회적인 인식능력도 향상된다고 보았다(Aboud, 1988). 즉, 연령의 증가에 따라 타인에 대한 공감능력이 발달하게 되고, 이는 청소년의 이타적인 행동을 증가시켜 다른 민족에 대한 편견과 태도를 줄이도록 도움을 준다(Hoffman, 2001; Doyle, Beaudet, Aboud, 1988; 최현옥, 김혜리, 2008). 초등학교 5학년이 4학년 학생보다 다문화수용성 점수에서 더 높은 경향을 보인 김미진(2010)의 연구결과가 이를 지지해준다. 하지만 최만식(2014)의 연구에서 학년 별로 다문화수용성을 비교한 결과, 초등학생의 다문화수용성이 가장 높았고 고등학생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Aboud(1988)의 주장과 반대되는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다문화수용성이 연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지만, 횡단적으로 집단비교만을 했기 때문에 연령의 변화에 따른 다문화수용성을 간과했다는 한계점이 있다.

이처럼 교우관계와 교사관계 그리고 다문화수용성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하는 경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단적 관계에서 교우관계와 교사관계 그리고 다문화수용성 간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한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최근 국내연구에서 다문화수용성의 종단적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 하나로 교우관계를 살펴보는 연구가 있었다(이수경, 2015).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교우관계의 변화를 가정하지 않고 분석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교우관계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한다는 선행연구에 기초하여(김경식, 이현철, 2010; 박정주, 2011; 김민성 외, 2012), 교우관계의 변화를 감안해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

기에 해당 선행연구와 차별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국내의 연구들은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로서 교사관계 및 교우관계를 면밀하게 살펴보기보다는 여러 심리·사회적 요인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변인들을 활용하고 있으며, 주로 횡단적으로 살펴 본 연구가 다수를 이루고 있다(최지영, 김재철, 2015; 박영주, 이주은, 2013). 따라서 종단적 관계에 있어 교우관계와 다문화수용성이 어떤 관련을 맺는지 그리고 교사관계와 다문화수용성은 어떤 관련을 맺는지 실증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 청소년기 교우관계, 교사관계, 다문화수용성은 어떤 발달궤적을 갖는가?

둘째, 청소년기 교우관계의 발달궤적은 다문화수용성의 발달궤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청소년기 교사관계의 발달궤적은 다문화수용성의 발달궤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0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한국 청소년정책연구원(NYPI)의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KCYPS)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는 2010년부터 초등학교 1학년과 초등학교 4학년, 그리고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매년 조사가 실시되고 있고 2016년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2010년에 중학교 1학년 패널 2,351명을 선정하고 동일한 대상을 2011~2013년에 조사한 중1

패널 2차년도 데이터(중학교 2학년), 중1패널 3차년도 데이터(중학교 3학년), 중1패널 4차년도 데이터(고등학교 1학년)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비(非)다문화가정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기 위해 다문화가정의 청소년들을 제외하고 비(非)다문화가정의 청소년 2,178명(남: 1,110명, 여: 1,068)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측정도구

교우관계

교우관계의 측정에는 민병수(1991)가 개발한 학교생활적응 척도 중 교우관계에 관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교우관계관련 문항은 ‘우리 반 아이들과 잘 어울린다.’, ‘친구와 다투었을 때 먼저 사과한다.’, ‘내 짝이 교과서나 준비물을 안 가져왔을 때 함께 보거나 빌려 준다.’, ‘친구가 하는 일을 방해한다.’, ‘놀이나 모둠활동을 할 때 친구들이 내 말을 잘 따라 준다.’ 이렇게 총 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부정문항인 ‘친구가 하는 일을 방해한다.’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변인을 측정함에 있어 부정문항은 부정문항이라는 방법 자체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홍세희, 노연경, 정송, 2011) 이를 제거하고 총 4문항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교우관계의 수준은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고(1=매우 그렇다, 2=그런 편이다, 3=그렇지 않은 편이다, 4=전혀 그렇지 않다), 교우관계 수준이 높을수록 4점, 낮을수록 1점이 되도록 역코딩하였다. 또한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의 교우관계를 묻는 문항이 동일하므로 2차년도의 교우관계를 측정하는 4문항에 대한 내적일관성을 대표로 검증하였으며 그 값은 .69로 양호한 수준의 신뢰도를 나타내었다.

교사관계

교사관계 또한 마찬가지로 민병수(1991)의 학교생활적응 척도 중 교사관계에 대한 문항 5개를 사용하였다.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고(1=매우 그렇다, 2=그런 편이다, 3=그렇지 않은 편이다, 4=전혀 그렇지 않다), 문항의 내용은 ‘선생님을 만나면 반갑게 인사한다.’, ‘선생님과 이야기하는 것이 편하다.’, ‘학교 밖에서 선생님을 만나면 반갑다.’, ‘우리 선생님께서는 나에게 친절하시다.’, ‘내년에도 지금 선생님께서 담임선생님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로 구성되어 있다. 교사관계 수준이 높을수록 4점에 가깝게끔 척도를 역코딩하였고, 2차년도의 교사관계를 묻는 5문항에 대한 내적일관성을 검증한 결과 그 값은 .84로 높은 수준의 신뢰도를 나타내었다.

다문화수용성

다문화수용성의 측정에는 양계민과 정진경(2008)의 다문화수용도 문항을 한국청소년정책 연구원이 수정 및 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나와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을 이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나와 문화적 배경이 다른 청소년을 같은 반 친구로 받아들일 수 있다.’, ‘나와 문화적 배경이 다른 청소년과 가장 친한 단짝이 될 수 있다.’, ‘이성 친구를 사귀게 된다면, 나와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을 이성 친구로 사귀어 수 있다.’, ‘커서 나와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과 결혼할 수 있다.’ 이렇게 총 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4점 리커트척도로 측정되었다(1=매우 그렇다, 2=그런 편이다, 3=그렇지 않은 편이다, 4=전혀 그렇지 않다). 다문화수용성 수준이 높을수록 4점에 가깝도록 역코딩하였고, 2차년도의 다문화수용성을 묻는 문항을 대표로 내적일관성을 본 결

과 그 값은 .84로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통제변수

청소년의 사회정서발달에 대한 가정환경의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보호자 최종학력과 가구연간소득을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보호자의 최종학력은 부모 혹은 부모 외의 보호자 중에서 학력이 가장 높은 경우를 사용하였고 (1=중졸이하, 2=고졸, 3=전문대졸, 4=대졸, 5=대학원졸), 가구 연간 소득은 만원 단위를 천만원 단위로 변환하여 사용하였다. 그리고 다문화수용성이 남자청소년보다 여자청소년에게서 더 높은 경향을 보인다는 선행연구(한운선, 김부경, 전수아, 2014; 임셋별, 2015)와 공동체의식이 다문화수용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이수경, 2015; 김문수, 2014)에 따라 성별과 공동체의식을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공동체의식은 ‘주변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친구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다.’, ‘공휴일에 쉬지 못하더라도 복지기관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다.’ 등 총 4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는 4점 리커트척도로 4점에 가까울수록 공동체의식 수준이 높게끔 역코딩하였다. 성별은 남자=1, 여자=0으로 더미 코딩하였다.

자료분석

본 연구는 교우관계, 교사관계, 다문화수용성의 발달궤적을 추정하고 이 발달궤적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잠재성장곡선모델링(latent growth curve modeling: LGCM)을 적용하였다. LGCM은 최소 3번 이상 조사된 종단자료 및 패널자료가 있을 때 사용가능하고 연구하고자 하는 변인에 대한 변화의 크기를 분석

하고자 할 때 사용된다. 개인의 반복 측정된 변수들을 통해 초기값과 변화율을 잠재변인으로 추정하는 방법이므로 기본적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의 원리와 같다고 볼 수 있다. 초기값은 변화함수에서 절편을 의미하며 요인적재량을 모두 1로 고정하여 상수화시키고, 변화율은 기울기로써 선형을 가정할 경우 보통 요인적재량을 0, 1, 2 혹은 1, 2, 3으로 고정시킨다. LGCM은 기본적으로 구조방정식에 기반하므로 홍세희(2000)의 제안에 따라 본 연구모형에 대한 적합도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χ^2 , TLI, CFI, RMSEA를 사용하였다. CFI와 TLI는 .90이상이면 양호하다고 보았고, RMSEA는 .80이면 양호하다고 판단하였다(홍세희, 2000). 마지막으로 종단자료에 포함되는 결측치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료의 정보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완전정보최대우도법(Full-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 FIML)을 사용하였다(Enders & Bandalos, 2001). 그리고 변수들에 대한 기술통계와 상관분석에는 SPSS 22.0을, LGCM의 적용에는 AMOS 22.0을 활용하였다.

결 과

기술통계

청소년의 교우관계, 교사관계, 다문화수용성의 변화와 이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해당 변인에 대하여 응답한 연구대상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표 1에 보고하였다.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3년간의 교우관계는 평균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다문화수용성 또한 교우관계와 같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교사관계의 경우 2차년도에

표 1. 교우관계, 교사관계, 다문화수용성의 평균과 표준편차(N=2,178)

변수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교우관계	3.06	.49	3.12	.46	3.14	.42
교사관계	2.81	.66	2.89	.63	2.88	.58
다문화수용성	2.79	.62	2.93	.62	3.04	.57

서 3차년도에는 평균적으로 증가하는 형태를 보이다가 4차년도에 3차년도에 비하여 미미하게 감소하는 형태를 보였다.

변수들 간 상관관계

교우관계와 교사관계, 다문화수용성을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세 차례 에 걸쳐 측정한 점수 간의 상관을 표 2 에 보고하였다. 교우관계와 교사관계의 상관은 크기 자체만을 봤을 때는 대체로 높지 않

은 편이라 할 수 있지만 다문화 수용성과의 상관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1차년도의 교우관계는 1차년도의 교사관계와($r = .39, p < .001$), 2차년도의 교우관계는 2차년도의 교사관계와($r = .40, p < .001$), 3차년도의 교우관계는 3차년도의 교사관계와 가장 큰 상관을 나타냈다($r = .46, p < .001$). 또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교사관계와 교우관계의 정적 상관의 크기가 점점 커짐을 알 수 있다. 교우관계는 1차년도~3차년도 모두 다문화수용성과 유의한 정적 상관

표 2.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N=2,178)

	1	2	3	4	5	6	7	8	9
1	1								
2	.40***	1							
3	.32***	.36***	1						
4	.39***	.19***	.20***	1					
5	.23***	.40***	.23***	.39***	1				
6	.19***	.16***	.46***	.31***	.31***	1			
7	.25***	.17***	.14***	.27***	.18***	.17***	1		
8	.14***	.24***	.17***	.16***	.22***	.15***	.41***	1	
9	.08***	.12***	.27***	.10***	.13***	.24***	.38***	.42***	1

* $p < .05$. ** $p < .01$. *** $p < .001$.

주. 1. 교우관계1(중2) 2. 교우관계2(중3) 3. 교우관계3(고1) 4. 교사관계1(중2) 5. 교사관계2(중3) 6. 교사관계3(고1) 7. 다문화수용성1(중2) 8. 다문화수용성2(중3) 9. 다문화수용성3(고1)

을 보였고, 동년도의 교우관계와 다문화수용성의 상관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교사관계 또한 다문화수용성과 1차년도~3차년도에 걸쳐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고, 동년도의 교사관계와 다문화수용성의 상관이 가장 컸다.

무성장모형과 선형성장모형

연구모형을 분석함에 앞서 교우관계, 교사관계, 다문화수용성의 변화가 일정한 궤적을 갖는지 아니면 변화하지 않는지 알아보기 위해 무성장모형과 선형성장모형에 해당 변수를 적용하여 모형 적합도를 비교분석하였다. 무성장모형과 선형성장모형은 그림 1에 제시하였다. 만약 무성장모형의 적합도가 선형성장모형의 적합도보다 좋다면 해당 변수는 시간에 흐름에 따라 변화하지 않으며 종단분석의 필요성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모형의 적합도의 판단은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χ^2 , TLI, CFI, RMSEA를 사용하였다.

표 3에 교우관계, 교사관계, 다문화수용성에 대해 무성장모형과 선형성장모형을 적용하여 모형 적합지수를 보고하였다. 교우관계의 경우 두 모형에 대한 χ^2 차이 검증에서도 무성장모형과 선형성장모형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Delta\chi^2=59.77$, $\Delta df=3$, $p<.001$), TLI, CFI, RMSEA 또한 선형성장모형이 더 적합한 수치를 보였다. 교사관계($\Delta\chi^2=47.75$, $\Delta df=3$, $p<.001$)와 다문화수용성($\Delta\chi^2=296.30$, $\Delta df=3$, $p<.001$)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선형성장모형이 더 적합한 수치를 나타냈다.

연구모형을 분석하기 위해 잠재성장모형을 채택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결과에 따라 각 변수에 대한 선형성장모형의 추정치 또한 살펴 보았다. 그 결과 표 4에 제시했듯이 각 변수의 초기치와 변화율에 대한 평균과 분산 그리고 공분산이 모두 유의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시 말해 전체 학생의 교우관계, 교사관계, 다문화수용성 평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변화율이 0이 아니므로 변화율의 평균만큼 증가 혹은 감소가 있다고 볼 수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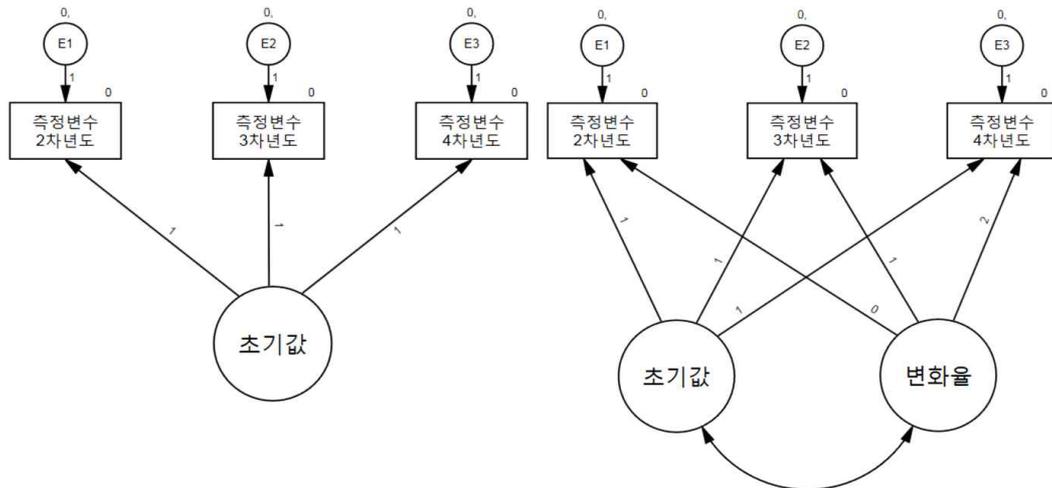


그림 1. 무성장모형(좌)과 선형성장모형(우)

표 3. 무성장모형과 선형성장모형의 모형적합도

변수	모형	$\chi^2(df)$	TLI	CFI	RMSEA [90% 신뢰구간]
교우관계	무성장	65.105(4)	.873	.916	.084[.067 .102]
	선형성장	5.331(1)	.964	.994	.045[.014 .085]
교사관계	무성장	58.707(4)	.869	.913	.079[.062 .098]
	선형성장	10.957(1)	.905	.984	.068[.036 .106]
다문화수용성	무성장	298.434(4)	.509	.672	.184[.167 .202]
	선형성장	2.137(1)	.992	.999	.023[.000 .067]

표 4. 각 변수에 대한 선형성장모형 추정치

변수	추정치	평균	분산	공분산(SE)
교우관계	초기값(SE)	3.071(.010)***	0.111(.009)***	-.022(.005)***
	변화율(SE)	0.037(.006)***	0.013(.004)**	
교사관계	초기값(SE)	2.822(.014)***	0.201(.018)***	-.042(.010)***
	변화율(SE)	0.039(.008)***	0.018(.008)*	
다문화수용성	초기값(SE)	2.796(.013)***	0.178(.016)***	-.023(.009)**
	변화율(SE)	0.125(.007)***	0.020(.007)**	

* $p < .05$. ** $p < .01$. *** $p < .001$.

다. 또한 분산이 유의하므로 각 변수에 대해 개인내적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각 변수에 대하여 변화율이 모두 정적으로 유의하기 때문에 교우관계의 경우 학년이 올라갈수록 그 수준이 .037만큼 증가함을 알 수 있고, 교사관계의 수준은 .039만큼, 다문화수용성의 수준은 .125만큼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모든 변수에서 초기값과 변화율의 공분산이 부적관계를 나타내는데 이는 초기값이 작으면 변화율이 크고 초기값이 크면 변화율이 작음을 의미한다.

연구모형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그림 2에 제시한 것과 같고, 두 모형에 대한 경로계수를 표 5에 보고하였다. 먼저 교우관계와 다문화수용성의 구조적 관계를 설정한 연구모형($\chi^2(16)=78.69$, $p < .001$, TLI=.933, CFI=.980, RMSEA=.042, 90% 신뢰구간=[.033, .052])과 교사관계와 다문화수용성의 구조적 관계를 설정한 연구모형($\chi^2(16)=67.69$, $p < .001$, TLI=.942, CFI=.983, RMSEA=.039, 90% 신뢰구간=[.029, .048]) 모두 좋은 적합도를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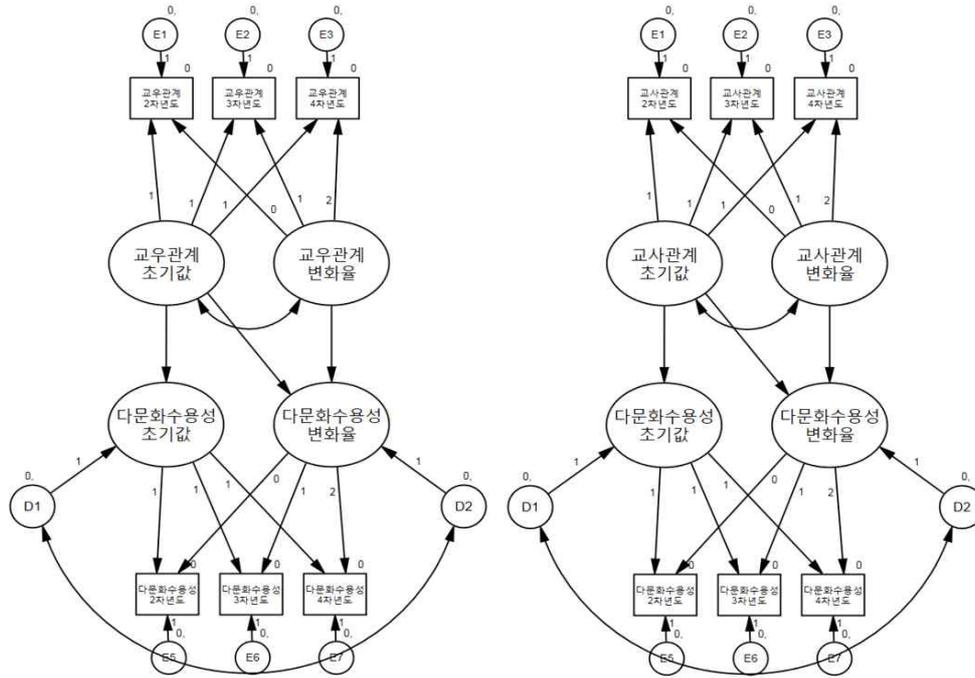


그림 2. 교우관계와 다문화수용성의 인과모형(좌)과 교사관계와 다문화수용성의 인과모형(우)

주. 각 모형에 대한 통제변수는 모형의 복잡성을 감안해 그림에 포함시키지 않음.

교우관계와 다문화수용성의 종단적 관계에서 교우관계의 초기값은 다문화수용성의 초기값에 유의한 영향을 나타냈고($\beta = 0.325, p < .001$), 교우관계의 변화율도 다문화수용성의

변화율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beta = 1.555, p = .002$). 이는 처음부터 교우관계 초기값이 높았던 청소년이 다문화수용성의 초기값도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교우관계가 증가

표 5. 연구모형의 경로계수

경로	비표준화 경로계수(SE)	표준화 경로계수
교우관계 초기값 → 다문화수용성 초기값	0.325(.053)***	0.250
교우관계 변화율 → 다문화수용성 변화율	1.555(.492)**	1.173
교우관계 초기값 → 다문화수용성 변화율	0.157(.072)*	0.334
교사관계 초기값 → 다문화수용성 초기값	0.284(.042)***	0.296
교사관계 변화율 → 다문화수용성 변화율	1.292(.557)*	1.186
교사관계 초기값 → 다문화수용성 변화율	0.174(.094)	0.492

* $p < .05$. ** $p < .01$. *** $p < .001$.

주. 결과보고의 간결함을 위해 통제변인 관련 내용은 보고하지 않음.

하는 변화율이 높을수록 다문화수용성이 증가하는 변화율도 높아진다는 것을 나타낸다. 다시 말해 친구와의 관계가 빠르게 친밀해질수록 다문화수용도의 수준도 빠르게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교우관계와 마찬가지로 교사관계의 경우도 교사관계의 초기값이 다문화수용성의 초기값으로 가는 경로($\beta = 0.284, p < .001$)와 교사관계의 변화율이 다문화수용성의 변화율로 가는 경로($\beta = 1.292, p = .020$)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따라서 교사관계가 처음에 높았던 청소년은 다문화수용성의 초기값도 높고, 교사관계와 다문화수용성의 종단적 관계에서 교사와 학생 사이가 긍정적일수록 다문화수용성의 수준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논 의

다문화 인구가 급증하는 가운데 사회 구성원들의 통합과 공존은 최근 주요 사회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으며, 특히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다문화 수용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발달 단계적 시기 중, 가치관을 확립하고 편견이나 고정관념에 쉽게 영향을 받는 청소년기는 다문화 수용성 연구를 하는데 있어 특히 중요한 시기이다. 아울러 이 시기에 교우와 교사와의 상호작용은 다문화 수용성의 근본이 되는 도덕성, 타인에 대한 이해, 공동체의식 능력(오미섭, 2013) 함양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문화 수용성, 교우관계, 교사관계 간의 구조적 관계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잠재성장곡선모델링

(LGCM)을 적용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른 다문화수용성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교우관계, 교사관계의 종단적 변화와 더불어 종단적 관계에서 교우관계와 교사관계가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발달단계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이에 따른 분석 결과에 대한 논의 및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교우관계, 교사관계, 다문화수용성의 수준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교우관계를 먼저 살펴보면, 학년의 변화에 따른 교우관계의 증진은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김민성 외(2012)의 연구에서 청소년들은 교우관계를 긍정적으로 인식하였으며 이러한 인식은 학년이 증가함에도 긍정적인 경향을 유지하였다. 이러한 긍정적인 교우관계의 증진은 청소년들의 친사회성 증가로 설명이 가능하다. 청소년들의 교우관계는 서로의 가치관과 성격에 따라 형성되며 수평적으로 관계를 맺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조성남, 박선웅, 2001). 이러한 교우관계에서 청소년들은 사회적 지지받을 수 있게 되며 이는 친사회적인 행동을 하게 될 동기를 증가시킨다(Wentzel, 1998). 즉, 청소년들은 또래와 긍정적인 관계를 맺을 때 친사회적 행동을 하게 되는데(진은설, 임영식, 2008), 이러한 친사회성은 주로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나아감에 따라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Fabes et al., 1999). 따라서 청소년들은 점차 친구의 입장에서 생각하게 되고 이타적인 행동을 하게 됨으로써 긍정적인 교우관계를 맺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교사관계의 경우 중학교 2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까지 정적으로 유의하게 변화하였다. 다시 말해 학년의 증가에 따라 교사와 학생간

의 관계는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선행연구와도 일치한다(이재경, 2012; 김민성 외, 2012; 박정주, 2012). 박정주(2012)는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5차년도에 걸쳐 교사에착과 학교부적응을 살펴 본 결과, 학년이 올라갈수록 교사에착이 증가하였으며 학교부적응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찬수 외(2012)의 연구에선 청소년과 교사 간의 관계가 긍정적일수록 사회성 성장률에 정적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교사와의 관계가 긍정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사회성 증가와 학교적응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교사와 긍정적인 관계를 맺는 청소년들은 사회성과 학교적응을 잘하게 되며 이는 교사와 지속적으로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

연령의 증가에 따른 다문화수용성의 증가는 인지발달을 통해 설명 가능하다. 아동은 대체적으로 나이가 들수록 인지가 발달하게 되는데 이때, 자신 이외의 제 3자에 대한 공감능력도 발달하게 되며 이타적 행동을 하고자 하는 동기도 증가하게 된다(Hoffman, 2001). 또한 인지발달은 유연한 사고를 가능하게 하며 이에 따라 인종에 대한 편견도 줄어들게 된다(Doyle et al., 1988). 최현옥과 김혜리(2008)는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마음이해 능력을 비교한 결과, 마음이해 능력은 지속적으로 발달하였으며 이는 사회적 행동과도 연관이 있다는 것을 보고하였다. 따라서 인지발달로 인한 공감능력의 향상과 유연한 사고는 다문화수용성의 증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청소년 후기로 갈수록 더 높은 교육수준과 넓은 사회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험은 인지적인 성숙을 일으

켜 다른 인종에 대한 편견을 낮춰준다(White et al., 2009).

둘째, 종단적 관계에서 교우관계는 다문화수용성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나타냈다. 즉 친구들과 잘 어울리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수록 다문화수용성이 높아지는 경향성을 보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교우관계의 초기값과 변화율이 다문화수용성의 초기값과 변화율에 각각 정적인 영향력을 유의하게 나타냈다. 교우관계의 초기값이 다문화수용성의 초기값에 정적인 영향을 나타내는 본 연구의 결과는 교우관계가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횡단분석을 통해 밝힌 선행연구들과 일치하는 부분이다. 이자형과 김경근(2013)은 중학교 1학년과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요인에 대해 분석했고, 그 결과 친구관계가 원만할수록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을 별 어려움 없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김경근과 황여정(2012)의 연구에서도 중학생의 경우 친구관계가 다문화수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나타냈다. 그리고 본 연구 결과의 표준화 경로계수를 보면, 교우관계의 변화율이 다문화수용성의 변화율로 가는 경로계수가 가장 큰데 이는 교우관계가 긍정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다문화수용성도 긍정적으로 증가하는 영향력이 크게 발휘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 다문화수용성은 다민족·다문화 사회에서 타인과 어떤 사회적 관계를 유지할 것인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이자형, 김경근, 2013), 청소년들이 사회적 관계를 주로 맺는 학교에서 긍정적인 교우관계를 맺을 경우 이는 다문화수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교우관계는 청소년들이 타인의 문제와 관점에 관심을 갖고 이를 통해 사회적·인지적 능력을 발달시

킬 수 있는 장을 마련해준다(오미섭, 2013). 즉 긍정적인 교우관계를 통해 이와 같은 능력의 발달을 잘 형성한 청소년은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또래와 긍정적인 관계를 맺을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긍정적인 교우관계형성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더불어 또래와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을 학교에서 제공함으로써 다문화수용성 함양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중단적 관계에서 교사관계는 다문화수용성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나타냈다. 즉 교사와의 긍정적인 관계가 다문화수용성의 증가를 예측하였다. 교우관계와 마찬가지로 교사관계의 초기값과 변화율이 다문화수용성의 초기값과 변화율에 각각 정적인 효과를 나타냈는데, 이는 교사관계가 중학생의 다문화수용성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로 지지될 수 있다(이자형, 김경근, 2013). 또한 본 연구의 표준화 경로계수를 보았을 때 교사관계 변화율이 다문화수용성의 변화율로 가는 경로에 대한 기여도가 가장 크므로, 교사관계의 증가속도가 빠를수록 다문화수용성이 빠르게 증가하게 되는 영향력 또한 크게 발휘될 수 있다. 이는 교사가 학생의 성적이나 어울려 다니는 친구에 따라 편견을 갖지 않고 진정한 관심과 애정으로 상호작용할 경우, 학생이 이러한 교사의 태도를 본받아 자신과 다른 집단에 속한 타인과의 사회적 거리감을 줄이는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과 관계된다. 사회적 거리감이 다양한 사회적 집단에 대한 자신의 편견이나 공감적 혹은 주관적 이해의 정도를 뜻하므로(정석원, 2014), 교사와의 긍정적인 관계를 통해 자신과 다른 문화를 지닌 타인과의 사회적 거리감을 줄인다면 다문화수용성의 증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이다. 같은 맥락으로 교사와 학생의 관계가 원활할수록 교사의 태도와 가치관을 학생이 잘 수용하게 되므로, 교사부터 다문화에 대한 지식을 바로 알고 다문화수용성을 기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넷째, 다문화수용성을 신장시키기 위해 타인과의 긍정적 관계와 공감을 중시하는 인성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일반적으로 연령의 증가는 인지능력과 공감능력의 향상을 수반하며 유연한 사고를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유연한 사고는 청소년시기에 크게 발달하게 되는데, 이 시기에 공감능력 향상을 위한 인성교육이 어우러진다면 청소년들의 공감능력과 다문화 수용성을 더욱 효과적으로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 중등학교의 교육은 입시위주의 교육에 치중되어 있고 공교육에서 다뤄야 할 시민의식과 공동체의식을 위한 교육에는 소홀한 것이 사실이다(김현주, 2015). 학교 교육은 학생들이 미래 사회의 변화에 적응하면서 타인과의 관계 또한 원만히 유지할 수 있는 역량과 태도 등을 길러주어야 할 책임이 있고 이를 위해서는 인성교육의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진희남, 2012). 또한 현재 우리 사회는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다른 문화 및 가치관을 가진 타인과 생산적이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성교육이 필히 요구된다. 그러나 현재 이뤄지고 있는 다문화교육을 보면 다문화 가정의 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루판, 2015). 다시 말해 소수자의 사회적응을 위한 교육이 주를 이루고 있고, 다수자가 소수자를 이해하는 교육은 비교적 적다고 할 수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12). 따라서 다수자와 소수자가 조화를 이루는 다문화사회를 위해 근본적인

관점에서 이타심, 배려심, 공감과 같이 타인과의 긍정적인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역량의 강화를 도와주는 인성교육이 필요할 것이라 본다(김경근, 황여정, 2012).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 및 추후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각 변수를 측정하는 문항이 4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는 걸 감안할 때, 초기값과 변화율 간의 공분산이 모든 변수에서 부적관계가 나타난 것은 천정효과(ceiling-effect)에 의한 것일 수 있다. 다시 말해 초기값이 낮을수록 변화할 수 있는 폭이 크므로 변화율이 높아질 수 있고, 초기값이 이미 크다면 증가할 수 있는 폭이 적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본 연구는 중학교 2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에 해당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했지만 이들과 인식론적 발달에서 차이가 나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추후연구를 진행할 필요성도 있을 것이다. 초등학생의 경우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객관적이라고 보는 절대주의적 관점을 갖고 있고, 중학생 이상이 되면 다른 사람의 의견들이 모두 동등한 입장을 갖는다고 생각하는 다수주의적 관점으로 바뀌게 된다(양계민, 2009). 이런 인식론적 발달의 차이가 다문화수용성에 있어서 차이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초등학생 대상과 중학교 이상의 대상을 비교 분석하는 연구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다문화수용성을 측정하는 문항을 보면 '나와 문화적 배경이 다른 청소년을 같은 반 친구로 받아들일 수 있다.'부터 '커서 나와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과 결혼할 수 있다.'까지 내용에 있어서 강도가 다른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문항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해 분석해보는 것도 추후연구에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본 연구는 중단적 관계에서 교우관계가 다문

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과 교사관계가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 분석했기 때문에 다문화수용성에 어떤 변인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추후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각 변수에 대한 변화모형을 설정할 때 본 연구에서는 선형성장을 가정하였지만 이차 혹은 삼차 곡선형성장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으므로 추후연구에 고차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하여 해당 변수에 대한 정밀한 발달계적 추정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교우관계와 다문화수용성, 교사관계와 다문화수용성 간의 인과관계를 좀 더 면밀히 살펴보기 위해 두 변인 간의 쌍방향적인 관계를 가정하는 자기회귀교차자연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할 필요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비록 위와 같은 한계점이 존재하지만 교우관계와 교사관계가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횡단적 효과만을 검증한 기존의 선행연구와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각 변수의 발달계적을 추정하고 이에 따른 중단적 관계에서 다문화수용성에 대한 교우관계와 교사관계의 영향력을 검증함으로써 풍부하고 역동적인 결과를 산출했다는 것에 차별성과 의의를 둘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다문화수용성을 기르기 위한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연구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교육과학기술부 (2012). 다문화학생 교육 선진화 방안.
- 김경근, 황여정 (2012). 초·중·고등학교의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교육, 39(1), 87-117.

- 김경식, 이현철 (2010).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부모, 교사, 교우 관계와 학업성취 간의 종단적 관계 분석. *중등교육연구*, 58(1), 203-225.
- 김문수 (2014). 청소년 공동체 의식이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또래 애착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현대사회와 다문화*, 4(2), 36-64.
- 김미진 (2010). 아동의 다문화 수용성 척도개발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미진, 정옥분 (2010). 아동의 다문화 수용성 척도개발과 타당화 연구. *人間發達研究*, 17(4), 69-88.
- 김민성, 신태수, 허유성 (2012). 중고등학교 시기 교사-학생관계, 교우관계의 종단적 변화가 자기결정성에 미치는 영향. *教育心理研究*, 26(2), 429-459.
- 김이선, 황정미, 이진영 (2007). 다민족·다문화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 구축 (1) - 한국사회의 수용 현실과 정책과제. *한국여성개발원 연구보고서*, 2-225.
- 김종백, 김남희 (2009). 교원평가를 위한 지표로서 학생-교사 애착관계도구(Stars) 개발과 타당화. *教育心理研究*, 23(4), 697-714.
- 김종백, 김준엽 (2014). 교사와 학생의 교사-학생 관계 지각이 학생의 수업이해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교육연구*, 31(3), 245-267.
- 김준홍 (2012). 다문화위기에 대응하는 한국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적 태도의 증진. *한국위기관리논집*, 8(6), 183-208.
- 김현아 (2013). 다문화상담 관련 종사자의 다문화수용성과 다문화상담자 자질의 관계. *상담학연구*, 14(3), 1717-1737.
- 김현정, 이태상 (2015).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이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 중심교과교육연구*, 15(2), 479-498.
- 김현주 (2015). 중학생의 시민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 요인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남희은, 이미란, 배은석, 김선희, 백정원 (2014). 대학생의 개인주의 - 집단주의 가치성향에 따른 다문화수용성에 관한 연구. *디아스포라 연구*, 8(2), 227-255.
- 루관 (2015). 중학교 다문화교육의 중국문화이해 수업지도안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문찬수, 박정하, 이해나 (2012). 학생 개인 및 학교 특성이 중학생의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종단연구. *미래교육연구*, 25(2), 1-21.
- 민무숙, 안상수, 김이선, 김금미, 류정아, 조영기 (2010). 한국형 다문화수용성진단도구 개발연구. *대통령 소속 사회통합위원회 연구보고*.
- 민병수 (1991). 학교생활적응과 자아개념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영신, 김의철, 김영희 (2007). 한국 청소년의 일탈행동 형성과정에 대한 종단 분석: 심리적, 관계적, 그리고 사회적 접근.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3(1), 1-41.
- 박영주, 이주은 (2013). 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학교사회복지*, 24, 285-310.
- 박정주 (2011). 교사에착이 학생의 학교부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종단 분석. *한국교육연구*, 28(3), 333-352.
- 박혜숙 (2013). 대학생 대상 다문화 수용성 척도 타당화. *교육과학연구*, 44(2), 219-248.

- 서종남 (2010). 중등학교 다문화교육을 위한 학생과 교사의 인식 조사 연구. *중등교육 연구*, 58(1), 93-116.
- 양계민 (2009). 국내 소수집단에 대한 청소년들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3(2), 59-79.
- 양계민, 정진경 (2008). 사회통합을 위한 청소년 다문화교육 활성화방안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여성가족부 (2013). 2012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
- 오미섭 (2013). 부모의 양육태도와 교사관계 및 교우관계가 중학생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호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윤인진, 송영호 (2009). 한국인의 국민정체성과 다문화수용성.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2009(1), 579-591.
- 윤준기 (2010). 초등학교 교사의 학생인권 존중이 교사-학생 관계, 학교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건남, 김영은, 이기용 (2013). 초등학생의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 미치는 요인 분석. *한국실과교육학회지*, 26(3), 1-14.
- 이수경 (2015). 청소년 다문화 수용성에서 나타나는 중단변화와 그 영향요인. *청소년학 연구*, 22(10), 27-48.
- 이자형, 김경근 (2013). 중학생의 다문화 수용성 영향요인. *교육사회학연구*, 23(3), 53-77.
- 이자형, 김경근 (2014). 한국 초등학생의 다문화 수용성 영향요인. *교육학연구*, 52(4), 55-81.
- 이재경 (2012). 청소년기 부모애착, 또래애착, 교사애착이 비행에 미치는 중단적 영향력. *청소년복지연구*, 14(2), 51-73.
- 임새별 (2015). 중학생의 발달자산과 다문화 수용성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정석원 (2014).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 연구. 공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정홍란 (2012). 청소년의 정서지능과 교우관계가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순천대학교 사회문화예술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조성남, 박선웅 (2001). 청소년 하위문화와 정체성 정치. *사회과학 연구논총*, 7(-), 117-162.
- 주소영, 이양희 (2012). 연구논문: 청소년 잠재 비행, 부정적 자동적 사고, 탄력성 (Resilience)의 관계에서 교사애착의 역할. *청소년학연구*, 19(8), 103-142.
- 지은림, 백순근, 채선희, 설현수 (2003). 교사-학생 관계 척도 개발 및 타당화. *교육평가 연구*, 16(2), 25-42.
- 진은설, 임영식 (2008). 자기효능감, 또래영향, 부모모니터링이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미래청소년학회지*, 5(4), 27-47.
- 진의남 (2012). 학교 교육에서 인성교육의 인식과 개선 요구. *實科教育研究*, 18(3), 145-169.
- 최만식 (2014). 교원과 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 차이와 영향요인 분석. 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최옥순 (2015). 고등학생의 성취목표지향성, 부모 지지, 교사-학생관계가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최지영, 김재철 (2015). 연구논문: 초등학생의 다문화수용성에 대한 심리, 사회적 요인

- 탐색. *청소년학연구*, 22(2), 389-411.
- 최현옥, 김혜리 (2008). 청소년의 마음이해 능력과 사회적 능력.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4(1), 1-18.
- 통계청, 여성가족부 (2014). 2014 청소년통계.
- 한윤선, 김부경, 전수아 (2014).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및 가정 환경 요인과 다문화 밀집지역의 조절효과. *청소년학연구*, 21(12), 97-125.
- 홍봉선, 아영아 (2011). 청소년의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에 관한 연구. *社會科學研究*, 27(3), 165-187.
- 홍세희 (2000). 특별기고: 구조 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7.
- 홍세희, 노연경, 정 송 (2011). 부정문항이 포함된 검사의 요인구조. *교육평가연구*, 24(3), 713-732.
- 황정미 (2010). 한국인의 다문화 수용성 분석. *亞細亞研究*, 53(4), 152-184.
- Aboud, F. E. (1988). *Children and prejudice* New York: B. Blackwell.
- Birch, S. H., & Ladd, G. W. (1997). The teacher-child relationship and children's early school adjustment.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35(1), 61-79.
- Berndt, T. J. (2002). Friendship quality and social development.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11(1), 7-10.
- Crosnoe, R., & Johnson, M. K. (2011). Research on adolescence in the twenty-first century. *Annual Review of Sociology*, 37, 439-460.
- Davis, H. A. (2003). Conceptualizing the role and influence of student-teacher relationships on children's social and cognitive development. *Educational Psychologist*, 38(4), 207-234.
- Doyle, A., Beaudet, J., & Aboud, F. (1988). Developmental patterns in the flexibility of children's ethnic attitude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19(1), 3-18.
- Enders, C. K., & Bandalos, D. L. (2001). The relative performance of 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for missing data in structural equation model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8(3), 430-457.
- Erickson, M. F., & Pianta, R. C. (1989). New lunchbox, old feelings: What kids bring to school. *Early Education and Development*, 1(1), 35-49.
- Fabes, R. A., Carlo, G., Kupanoff, K., & Laible, D. (1999). Early adolescence and prosocial/moral behavior I: The role of individual processes. *Th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19(1), 5-16.
- Fordham, K., & Stevenson Hinde, J. (1999). Shyness, friendship quality, and adjustment during middle childhood.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0(5), 757-768.
- Gurucharri, C., & Selman, R. L. (1982). The development of interpersonal understanding during childhood, preadolescence, and adolescence: A longitudinal follow-up study. *Child Development*, 53(4), 924-927.
- Hartup, W. W. (1983). Peer relations. In P. H. Mussen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4. Socialization, personality, and social development* (pp. 103-196). New York: John Wiley.
- Hartup, W. W. (1993). Adolescents and their friends. *New Directions for Child and Adolescent*

- Development*, 1993(60), 3-22.
- Hoffman, M. L. (2001). *Empathy and moral development: Implications for caring and justi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ymel, S., Rubin, K. H., Rowden, L., & LeMare, L. (1990). Children's peer relationships: Longitudinal prediction of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problems from middle to late childhood. *Child Development*, 61(6), 2004-2021.
- Parker, J. G., & Asher, S. R. (1993). Friendship and friendship quality in middle childhood: Links with peer group acceptance and feelings of loneliness and social dissatisfac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9(4), 611-621.
- Pianta, R. C., & Steinberg, M. (1992). Teacher-child relationships and the process of adjusting to school. *New Directions for Child and Adolescent Development*, 1992(57), 61-80.
- Sharabany, R., Gershoni, R., & Hofman, J. E. (1981). Girlfriend, boyfriend: Age and sex differences in intimate friendship. *Developmental Psychology*, 17(6), 800-808.
- Wentzel, K. R. (1998). Social relationships and motivation in middle school: The role of parents, teachers, and peer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90(2), 202-209.
- White, F. A., Wootton, B., Man, J., Diaz, H., Rasiah, J., Swift, E., et al. (2009). Adolescent racial prejudice development: The role of friendship quality and interracial contact.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33(6), 524-534.
- Youniss, J. (1982). *Parents and peers in social development: A sullivan-piaget perspectiv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논문 투고일 : 2015. 10. 09
1 차 심사일 : 2015. 10. 15
게재 확정일 : 2016. 02. 05

Analysis of the Association between Teacher Relationship, Peer Relationship, and Multicultural Acceptability among Adolescents in Korea: Using Latent Growth Modeling

Taekho Lee Seokyoung Lee Yoonsun Han

Department of Child Psychology & Education, Sungkyunkwan University

In this study, we examined the longitudinal change of multicultural acceptability, peer relationship, and teacher relationship using latent growth curve modeling. This study used data from the second, third, and fourth waves of the middle school student cohort ($N=2,178$) of the Korean Children-Youth Panel Survey (KCYPs). The dependent variable was multicultural acceptability. The independent variables were peer relationship and teacher relationship. The major longitudinal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peer relationships, teacher relationships and multicultural acceptability increased with time. Second, peer relationship showed a significant effect on the multicultural acceptability over time. Finally, the teacher relationship showed a significant effect on the multicultural acceptability over time. These results show differentiation with previous cross-sectional studies of multicultural acceptability. Furthermore, it is expected that this study will provide educational implications for the cultivation of multicultural acceptability.

Key words : physical education, gender, aggression, depression, social withdrawal